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느린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 중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미취학 느린 학습자 미술교육 프로그램.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부터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행복한 거북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 71~84 사이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적응이 힘들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지능지수 70 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 선상에 있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정책이나 복지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미취학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놀이체육, 음악 및 미술교육 등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지원 센터를 설립해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주한 현실에서 깨달은 '느린 학습자'

2015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이 막 등장한 시기였다. 초기에는 공부방 운영 경험을 살려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르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는 컸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느린 학습자가 지적장애인과 다른 점은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의 개선이나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에 걸친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경계선 지능이라는 낙인감을 갖기 전에, 빠르게 개입할수록 효과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생애 큰 전환기를 앞둔 7세 미취학 아동이 가장 적절했다.

미취학 느린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취지와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령기가 아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0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협력기관에 선정되면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다.

느리지만 자라고 있다는 희망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한 거북이 프로그램은 지능검사부터 느린 학습자의 속도에 맞춘 언어발달, 학습력과 사회성 증진 활동, 심리치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시작한 행복한 거북이 프로그램은 첫째 참여자 9명, 보호자 9명으로 시작해 3년째인 올해까지 모두 60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간 진행하지 못했지만 2차년도부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그룹으로 운영했다.

느린 학습자인 이세진(가명) 군은 행복한 거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늘었다. 세진이 엄마 오현주(가명) 씨는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진이의 성격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된 것이 안심됐다”고 전한다. 세진이는 언어재활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 자신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서 다정하게 격려하고 안아주는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현주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내 아이도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심했던 것 같아요. 부모교육을 통해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춰 가지는 느긋함이 생겼어요. 아이는 그저 조금 느린 것뿐인데, 다그치기만 하고 격려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요. 그동안 세진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주 씨는 ‘아이들은 금방 쑥쑥 자라기 때문에 적절히 개입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선생님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전한다.

미취학 느린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는 부모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인

지 여부를 아는데 까지도 장벽이 크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부모 대상의 양육교육을 실시해 보호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느린 학습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시각을 전환하고, 느린 학습자 부모 간에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날갯짓은 계속된다

“1, 2차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었는데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 표현했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신감이 붙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 기뻐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행복한 거북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인 만큼, 축적한 노하우를 다양한 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백애신 과장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13%를 차지하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전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3차년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교육을 강화하며, 부모모임을 조직해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개입 모델과 매뉴얼을 확립해 여러 기관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변화라는 큰 물결로 향해 가는 날갯짓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글 **박한나** 작가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사고력 향상 수업 모습.